

제약기업들, 신약 개발에 방점... “글로벌 빅파마 도약 원년”

유한양행, 신규 사업 확대 도모
한미약품, 지속가능 혁신경영 밝혀
GC녹십자, 맞춤형 헬스케어 선도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이 3일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제약기업들은 2022년 혁신과 도전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동안 다져 온 혁신 신약 개발의 성과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3일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열정, 도전, 창조’라는 경영지표를 밝혔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신약의 개발과 신규사업의 확대를 도모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 조옥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원 팀, 원 글로벌” 경영슬로건 아

래 글로벌 50위권 제약사로 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긍정적, 창의적, 열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며 “2022년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력이산(衆力移山) 즉, 힘을

합치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처럼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역시 ‘제약강국을 위한 지속가능 혁신경영’을 새로운 경영 슬로

건으로 내세웠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 사장은 “창조와 혁신은 평온할 때 그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지나온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한미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 나가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저함 없이 담대히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GC녹십자는 2022년 미래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 선도를 위해 변화에 도전한다. 허은철 GC녹십자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전세계가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고를 확장하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할 최고의 적기”라며 “더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라고 말했다.

허 대표를 이을 위해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다면 본질 이외의 것은 모두 바꾸며 변화를 시도할 것’ ‘미래의 요청에 즉각 답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실력을 갖출 것’ ‘실력을 연마하듯 모든 분야에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가시화되는 신약 성과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 전승호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대응제약의 ‘글로벌 2025 비전’ 달성과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 회사의 혁신 동력 결집이 필요한 때”라며 “열정과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만 있다면,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더라도 혁신과 창의를 무기로 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임을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망막질환 신약’ 中 专利权 이전

약 1725억 규모... 로열티 별도
제조·개발·상용화 등 독점권



한미약품이 2022년 업무 시작과 함께 안과 분야 혁신신약에 대한 专利权 이전 소식을 전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단계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인 에퍼메드 테라퓨틱스에 자사의 안과 분야 혁신신약 ‘리수테가닙(제품명: 루미네이트)’의 중국 내 독점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专利权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루미네이트는 한미약품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미국 안과전문 연구개발(R&D) 기업 알레그로가 개발한 망막질환 분야 신약이다. 알레그로는 미국

등 글로벌 지역에서 건성노인성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루미네이트의 글로벌 2b·3상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한국과 중국에서 리수테가닙(루미네이트)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알레그로부터 독점적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에퍼메드가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 건성노인성황반변성 등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안과 주사제 리수테가닙의 제조, 개발, 상용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한미약품은 이번 에퍼메드와의 계약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 600만 달러(약 71억원)를 포함해 향후 임상시험과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받게 되는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총 1억4500만 달러(약 1725억원)를 수취하게 된다. 중국에서 제품이 출시되면 두 자릿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별도로 받는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안과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 루미네이트가 중국의 역량 있는 바이오기업 에퍼메드를 통해 보다 발전된 미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과 영역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인사... 신약 R&D 강화 중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탄력

동국제약이 헬스케어사업부 미래 사업개발팀 황은성 실장을 이사(보)로 승진시키는 등 헬스케어사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제약 부문 연구개발(R&D) 강화에 중점을 둔 내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황은성 이사(보)와 함께 함명진 상무(보) 이근영 부사장 등 헬스케어 부문 3명, 중앙연구소 이계완 상무(보)와 DK의약연구소 강수연 전무(보) 등 R&D 부문 2명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헬스케어사업부 핵심 브랜드의 리뉴얼과 화장품 해외 시장 진출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R&D 부문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점차 늘어나는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법무와 감사 업무를 담당할 감사



실을 신설, 유규원 상무(보)를 감사실장에 승진 발령했으며 전문의약품(ETC) 사업부 강성오 상무(보)가 승진했다.

더불어 전세일 사장대우를 ETC·OTC사업부 총괄사장에, 이종진 사장대우를 헬스케어사업부 총괄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제약 및 헬스케어 영업력 확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동국제약은 임원 승진 인사와 함께 오홍주 부회장, 권기범 회장(사진) 추대로 새로운 전문경영체제의 길을 열었다. 1989년 입사한 오 부회장(64)은 2013년 사장에 오른 뒤 9년 만에 부회장에 추대됐다.

권 회장은 1994년 입사 후 2002년 대표이사와 2010년 부회장 선임의 길을 걸어오면서 동국제약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 본격화

카테일 항체 활용 안전성 입증

셀트리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대응을 위해 개발해 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 ‘CT-P63’의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와 결합한 카테일 항체를 활용, 코로나19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부터 건강한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폴란드에서 CT-P63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해 왔다. 시험 결과, CT-P63 투여군에서 약물 투여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과 내약성 및 약동학(PK)이 입증됐다.

셀트리온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을 통해 CT-P63의 슈도(모조) 바이러스 중화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CT-P63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도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은 추가로 CT-P63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동물효능시험도 진행해 올해 1분기 내로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CT-P63은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항체치료제 후보물질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주요 변이에서 중화능을 입증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기업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협력해 렉키로나 흡입제형 임상 1상 시험의 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1분기 내로 렉키로나와 CT-P63을 결합한 카테일 항체 흡입형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과 임상 디자인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1분기 내 동물 실험을 통해 카테일 흡입제형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2분기 내에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해 규제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원F&B-비엠스마일

펫푸드 개발·판매 업무협약

동원F&B가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페스룸(PETHROOM)’을 운영하는 비엠스마일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문화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원F&B는 비엠스마일과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비엠스마일 본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용 기능성 습식 파우치와 캔 제품에 대한 공동 개발 및 판매,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30년 이상 펫푸드를 제조하며 쌓아온 동원F&B의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에 비엠스마일의 디지털 마케팅 강점을 더해 컬래보레이션 제품 출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원F&B는 1991년부터 펫푸드를 만들어 일본에 약 30년간 5억5000만개 이상의 반려동물용 습식캔을 수출해온 만큼 검증 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농심켈로그, 데상트와 프로틴 시장 공략

‘호랑이 기운 스포츠 팩’ 공개

농심켈로그 프로틴이 스포츠 패션 브랜드 데상트(DESCENTE)와 건강한 새해를 응원하는 콜라보레이션 컬렉션 ‘호랑이 기운 스포츠 팩’을 공개하고 2022년 프로틴 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심켈로그는 새해를 맞아 간편하고 맛있게 단백질을 즐길 수 있는 프로틴 라인업과 트렌디한 애슬레저 패션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데상트와의 협업을 기획했다. 소비자들 사이 건강한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협업은 식품·패션 브랜드 간의 시너지로 일상속에서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심켈로그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으로 국내 프로틴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심켈로그가 새해를 맞아 간편하고 맛있게 단백질을 즐길 수 있는 프로틴 라인업과 트렌디한 애슬레저 패션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데상트와의 협업을 기획했다.

/농심켈로그

‘데상트x켈로그 호랑이 기운 스포츠 팩’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의 슬로건과 비전을 결합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운동’이라는 콘셉트로 전개된다. 라인업은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하여 의류 6종, 패션 악세서리 4종 등 총 11종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